

關羽 神格化와 宗教的 활용 양상 고찰*

裴 圭 範**

(中國華中師範大學)

閔 寬 東***

(慶熙大學校)

◆ 국문초록

본고는 關羽 神格化가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역사상 관우의 忠義武勇과 함께 민중들이 갈망하는 영웅출현의 심리작용,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종교계의 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儒·佛·道 삼교가 관우 신격화 과정에서 어떻게 종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 그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關羽神은 유·불·도교에 있어서 독특한 경로를 밟으며 뿌리를 내렸다. 즉, 佛敎에서는 寺刹을 지키는 '伽藍神'으로 격상시키면서 토착화에 성공하였고, 道敎에서는 악마를 쫓고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三界伏魔大帝'의 萬能守護神으로 활용되었으며, 儒敎에서는 '儒將' 관우 이미지를 공자의 春秋大義와 연결하여 '尊王攘夷'라는 시대정신으로 재창조하였다. 즉 나라를 수호하는 忠義의 武神으로 삼아 이를 국가 통치 질서 확립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關羽, 神格化, 儒佛道, 宗教, 伽藍神, 三界伏魔大帝, 儒將, 春秋大義

* 본 논문은 2017년 경희대학교 교비 맞춤형 연구비로 진행되었음.

** 裴圭範(中國華中師範大學 敎授): 主著者

*** 閔寬東(慶熙大 中國語學科 敎授): 交信著者

I. 서론

역사적 개인이 문화적 존재로 발전하는 예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인류가 역사 속에서 갖는 한계와 아쉬움을 영웅의 출현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관우는 한자문화권에서 최고의 영웅 중 하나이다. 그의 문화적 가치는 190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이어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중국 전역을 넘어 세계 곳곳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사 속에는 강력한 전투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국난 극복의 성과를 보여준 수많은 將相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유독 관우만은 일반 백성에서 황제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한족이든 이민족이든 왕조가 바뀔수록 그에 대한 우상화의 깊이와 폭은 심화되었다. 이렇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그에 대한 문화적 각색의 대대적 성공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문화적 각색의 저변에는 바로 神格化 전략이 있었다. 그러므로 관우 신격화를 추적하는 과정은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진실’ 사이에서 영웅을 갈망하는 인간 심리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관우가 일개 將軍에서 侯 → 公 → 王 → 帝(神)으로 격상되는 단계 중 종교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진행된 정치적 관점에 대한 연구¹⁾와 짝을 이루어 관우 신격화 과정의 문화사적 의미에 대한 점검이라 할 수 있다. 즉 관우 신격화가 일종의 문화현상이 된 것은 역사상 관우의 忠義武勇과 함께 민중들이 갈망하는 영웅출현의 심리작용,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종교계의 활동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대규모 종교적 宣揚은 정권의 지지를 전제로 한다. 봉건사회의 정권 역시 종교계의 정신적 지원을 통해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政權과 神權의 상호 작용에 의해 관우 역시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관우 신앙과 關廟, 『三國志演義』를 비롯한 공연예술 방면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 관공 신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치밀하게 점검한 구은아²⁾나 관우 문화현상에 근원과 의미

1) 배규범·민관동, 「정치적 관점에서 본 關羽 神格化의 歷史的 변모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42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4

에 대해 논의한 남덕현³⁾, 관제 신앙의 조선 전래 과정을 논의한 전인초⁴⁾ 등이 그 대표라 하겠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불교와 도교, 유교가 어떤 식으로 관우를 신격화하였고, 또 어떻게 종교적으로 활용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 관우 신격화가 神權과 政權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우 신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佛敎의 토착화 과정과 關羽의 神格 편입

1. 天台智顛와 關羽의 만남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자리를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하지만 토착민속신앙과 도교의 텃세가 강한 만큼 외래 종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토착화 전략을 세워야만 했다. 그 포인트는 바로 기존 神靈과의 결합이었다. 그 중에서도 기존 佛敎敎旨와 부합하면서도 현지 신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 가운데 관우가 불교에 의해 선택된 것은 탁월한 안목이었다.

關羽 神格化의 시작은 天台宗의 창시자인 智顛(583~597)로부터이다. 천태지지는 浙江省 天台山에서 천태학을 확립하며 명성을 떨쳤던 고승이다. 그는 생전에 35개의 대찰을 짓고 승려 4천여 명을 제도했으며, 공식적으로 법을 전수받은 제자로만 32명이 있을 정도였다. 그가 湖北省 荊州 玉泉山을 찾은 것은 開皇(581~600) 연간으로 추측된다. 그와 관우의 인연이 기록된

2) 구은아, 「중국의 關公信仰 고찰 : 관공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 관공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3) 남덕현, 「關羽 神格化의 요인 고찰」, 『中國研究』 4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9 ; 남덕현, 「關羽 문화현상의 의의」, 『중국학』 40집, 대한중국학회, 2011 ; 남덕현, 「關羽 숭배의 근원」, 『中國研究』 5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1.

4) 전인초, 「關羽의 인물조형과 關帝信仰의 조선전래」, 『동방학지』 13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가장 이른 문헌은 唐 德宗 貞元18年(802) 董挺(?~812)이 지은 「荊南節度使 江陵尹裴公重修玉泉關廟記」이다.⁵⁾ 이 문장은 江陵太守 裴均의 명으로 玉泉寺의 關廟를 중수하고서 지은 것이다.

“玉泉寺는 覆船山에 있는데, 동으로 當陽 쪽 30리에 있다. 첩첩 산들이 휘감아 돌고 飛泉이 샘솟는다. 참으로 道人の 淨界요 疆域 중의 절경이다. 절 서북쪽 3百步에 蜀 將軍 都督荊州事 關公 遺廟가 있다. 장군의 성명은 관우이고, 河東 解梁人이다. 公族功績은 國史에 자세히 나와 있다. 먼저 陳 光大(567~568)에 智顛禪師가 天台山으로부터 (이곳에) 이르러 喬木 아래에서 禪定에 들었는데 밤에 갑자기 신령과 만났다. 신령이 말하길, ‘이 땅에 僧房을 짓기 원하니 선사가 산을 나가서 그 쓰임새를 봐 주십시오.’ 기약한 날 밤이 되자 온갖 골짜기가 진동을 하고 바람과 번개가 몰아쳤다. 앞에서 큰 재가 쪼개지더니 뒤에 맑은 연못을 메웠으며, 좋은 재목들이 넘어져서 그 위에 두루두루 쌓였다.”⁶⁾

이 문장은 옥천사 창건 전설에 해당한다. 智顛가 覆船山(玉泉山)에 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이 산에 깃들어 있던 관우 신령이 나타나 그가 절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것은 玉泉寺를 짓기 전에 서북쪽 3백 보 위치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는 점이다. 형주 일대는 옛날 楚땅에 속했다. 楚文化는 巫鬼를 믿고, 淫祀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⁷⁾ 게다가 형주 사람들은 관우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

-
- 5) 董挺은 字가 庶中으로, 隴西人이다. “중년에 佛老를 숭상하여 三乘의 법을 설했다(中年奉佛老, 說三乘).”(劉禹錫, 「故荊南節度推官董府君墓志銘」, 董誥 等 編, 『欽定全唐文』 卷160, 上海古籍出版社, 1990)는 기록으로 보아 圓融三教한 사람이었다. 또 裴均은 山西省 絳州 聞喜人으로, 관우의 고향인 해주와 인근 출신이다.
- 6) 董挺, 「荊南節度使江陵尹裴公重修玉泉關廟記」, 『全唐文』 卷684, 上海古籍出版社, 1990, 7001쪽. “玉泉寺覆船山, 東去當陽三十裏. 疊嶂回擁, 飛泉逸通. 信道人之淨界, 域中之絕景也. 寺西北三百步, 有蜀將軍都督荊州事關公遺廟存焉. 將軍姓關名羽, 河東解梁人. 公族功績, 詳於國史. 先是陳光大中智顛禪師者, 自至天台, 宴坐喬木之下, 夜分忽與神遇, 雲巖舍此地爲僧坊, 請師出山, 以觀其用. 指期之夕, 前壑震動, 風號雷兢, 前劈巨嶺, 下湮澄潭, 良材叢木, 周匝其上.”
- 7) 劉欽 撰 『舊唐書』, 「地理志」. “大抵荊州奉敬鬼, 尤重祠祀之事. 昔屈原爲制「九歌」, 蓋由此也.” 劉海燕, 「關羽羽象與關羽崇拜的演變史論」,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24쪽 재인용.

다. 또 형주는 관우의 인생에서 勇將으로 명예를 떨친 곳이자 최후를 맞이한 곳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평민 출신으로 장군이 된 인물인 데다가 “병졸에게는 후덕했지만 사대부에게는 오만한(善待卒伍而驕於士大夫)”⁸⁾ 인물로 다분히 의협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속성들은 일반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비통함 그 자체였으며, 이는 그리움을 넘어 신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기에 관우를 신으로 모시며, 그에게 한해의 풍년과 흉년의 운명을 맡겼던 것이다. 그 후 수많은 전설이 만들어지고,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사당을 지어 제사를 이어갔다.⁹⁾ 이런 모습은 唐代宗(763~779) 때 활약했던 시인 郎士元의 시에서도 확인된다.

將軍稟天姿，義勇冠今昔。

장군의 자질은 하늘에서 받아, 義勇은 예나 지금이나 으뜸일세.

走馬百戰場，一劍萬人敵。

온갖 전쟁터를 달리고, 한 칼로 만인을 감당했었지.

雖爲感恩者，竟是思歸客。

비록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은 선주에게로 돌아갔다네.

流落荊巫間，徘徊故鄉隔。

형주 무당들 사이를 떠돌고, 고향과는 먼 곳을 배회했지.

離筵對祠宇，灑酒暮天碧。

자리 떠나 멀리 사당 마주하고, 저녁 하늘가에 술을 뿌려본다.

去去勿復言，銜悲向陳跡。

가시거들랑 다시 말하지 마소, 자취들 보니 슬픔 머금었도다.¹⁰⁾

郎士元은 唐代에 錢起와 함께 시에 뛰어나 “앞에는 沈宋(沈佺期和 宋之問)이요 뒤에는 錢郎(錢起와 郎士元)”이라 칭송받았던¹¹⁾ 문인이다. 그는 당시 郢州刺史(현 湖北 京山)로 있었는데, 관우의 사당 근처에서 형주로 돌아가는 친구 高員外를 위해 주연을 베풀며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이별의 아

8) 陳壽 撰, 裴松之 注, 『三國志』, 上海古籍出版社, 2011, 871쪽.

9) 王齊洲, 「論關羽崇拜」, 『天津社會科學』, 1995년6期, 83쪽.

10) 郎士元, 「關公祠送高員外還荊州」, 『全唐詩』 권248, 中華書局, 1983, 3954~3955쪽.

11) 『한시작가작품사전』, 국학자료원, 2007(네이버 지식백과 <http://me2.do/G4sxUK4f>).

쉬움이 이 시의 주된 정조이다. 하지만 “走馬百戰場，一劍萬人敵”，“流落荊巫間”라는 시구 속에서 보여주듯 관우의 武勇 사적과 함께 그를 기리는 당시 민간 신앙의 당시 정황이 포착된다. 관우 사당이 郢州와 荊州 當陽縣 등 호북성 일대에 두루 퍼져 있었음을 물론이다.

이상의 기록 외에도 智顓의 제자 灌頂(561~632)이 지은 「隋天台智者大師別傳」과 道宣(596~667)이 지은 「隋國師智者天台山國清寺釋智顓傳」에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다. 전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렇지만 후자들에는 약간의 추가된 대목이 있는데, 하나는 옥천산 일대가 원래 荒險한 곳이라 짐승들과 뱀들이 득실거리 “三毒이 덮여 있어, 그곳을 밟는 자는 심장이 차가워진다.”는 말까지 있었는데, 옥천사를 짓고 난 뒤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 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형주 지역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신이 노했다고 하자 지의가 직접 나서서 샘물을 파고 독경을 해서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지의의 법력을 강조함으로써 음기 넘치는 옥천산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우 신령은 지역 陰氣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다.¹²⁾

사실 관우 신령에 대한 민간의 최초 이미지는 凶神이었다. 厲鬼¹³⁾로서의 관우 이미지는 ‘關三郎’이 대표적이다. 唐末 範攄이 쓴 『雲溪友議』에 “蜀前將軍 관우는 형주를 지켰고, 형주에는 玉泉祠가 있는데, 천하 사람들은 四絕之境이라 한다. 혹 말하길 이 사당은 귀신의 도움으로 토목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사당 이름은 三郎神인데, 三郎은 곧 關三郎이다.”¹⁴⁾라는 언급이

12) 灌頂, 「隋天台智者大師別傳」, 石俊等編, 『中國佛教思想資料選編』卷2册1, 中華書局, 1983, 167쪽. “其地本來荒險, 神獸蛇暴, 諺云: “三毒之蔽, 踐者寒心.” 創寺其間, 決無憂慮. 是春夏旱, 百姓咸謂神怒, 故智者躬至泉源, 滅此邪見. 口自咒願, 手又揮略, 隨所指出, 重雲瓊巖, 籠山而來, 長虹煥爛, 從泉而起, 風雨沖溢, 歌詠滿路.”

13) 옛말에 ‘鬼’는 그 발음에서 ‘歸’라고 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돌아가는 것이 鬼이고, 鬼는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돌아갈 곳 없는 歸, 즉 비정상적으로 죽은 자(橫死나 後嗣없이 죽은 자)를 말하는데 이를 厲鬼라고 한다. 烏丙安, 『中國民俗學』, 遼寧大學出版社, 1985, 267쪽. 구은아, 「중국의 關公信仰 고찰-관공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 관공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237쪽 재인용.

14) 範攄, 『雲溪友議』卷3, 陳夢雷編, 『古今圖書集成』卷54, 中華書局, 1934, 7쪽上. “蜀前將軍關羽守荊州, 荊州有玉泉祠, 天下謂四絕之境. 或言此祠鬼助土木之功而

있는데 여기서 관삼랑은 관우를 지칭한다. 그 뒤 五代의 孫光憲은 『北夢瑣言』에서 “唐 咸通(860~873) 난리 후, 城內 골목마다 關三郎 鬼兵이 들어올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돌아 집집마다 공포에 떨었다. 병을 앓는 자들은 아주 심한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한과 신열에 떨어야 했다.”¹⁵⁾라고 관우를 공포의 厲鬼로 묘사했다. 이러한 점은 생전 武將으로서의 거친 이미지와 吳軍에 잡혀 죽고만 冤鬼라는 이미지에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의 기록들은 관우와 불교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본격적인 불교 관련설은 宋代에 와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날 밤 구름이 개이고 밝은 달이 떴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다. 威儀가 왕후장상 같은 이는 아름다운 수염에 후덕했으며, 젊은이는 冠帽을 쓰고 풍채가 뛰어났다. 앞에 이르러 공손히 말하길, ‘……나는 蜀漢의 義臣으로 漢 황실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時事가 어긋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원컨대 우매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특별히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제가 마땅히 아들 짝과 절을 세우고 이바지하여 불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원컨대 대사께서 安禪하시고 7일이면 완성될 것입니다.’……대사는 대중을 거느리고 들어가 머물며 밤낮으로 불법을 설하였다. 하루는 신령이 대사에게 아뢰길, ‘弟子가 오늘 出世間法을 들었으니, 원컨대 마음을 씻고 생각을 바꾸어 계를 받아 영원히 보리의 근본을 구하겠나이다.’ 대사가 즉시 향불을 잡고 五戒를 내려주었다. 이에 신령의 威德이 천리에 밝게 퍼져 원근에 우리러 기도함에 모두가 肅敬했다.”¹⁶⁾

이처럼 南宋 天台宗 沙門 志磐이撰한 『佛祖通紀』에서는 關羽 신령과 智顓 스님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훨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陰鬼였던

成, 祠曰三郎神. 三郎即關三郎也.”

15) 孫光憲, 『北夢瑣言』 卷11, 『關三郎入關』, 中華書局, 2002, 96쪽. “唐咸通亂離後, 坊巷訛言關三郎鬼兵入城, 家家恐悚, 懼其患者, 令人熱寒戰栗, 亦無大苦.”

16) 志磐 撰, 釋道法 校注, 『佛祖統紀校注』 권6, 上海古籍出版社, 2012. “其夕雲開月明, 見二人威儀如王長者美髯而豐厚, 少者冠帽而秀發, 前致敬曰,……子義臣蜀漢, 期復帝室, 時事相違有志不遂,……願哀閱我愚特垂攝受……弟子當與子平建寺化供護持佛法, 願師安禪, 七日以須其成.……師領衆入居, 晝夜演法, 一日神白師曰, 弟子今日獲聞出世間法, 願洗心易念求受戒永爲菩提之本, 師即秉爐授以五戒, 於是神之威德昭布千裏, 遠近瞻禱莫不肅敬.”

관우가 스님을 위협하여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의 법력에 굴복하여 지의가 원한 절을 7일 만에 지어준다. 그리고는 그 자신도 五戒를 받아 불법을 수호하고菩提를 궁구하는 佛弟子가 된다. 이에 관우는 사찰 수호신, 즉 伽藍神으로 등극하게 된다. 그리하여 관우는 厲鬼의 이미지를 벗고 威儀를 떨치는 신령으로서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는 본격적인 관우 신앙이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편 지의와 관우가 연관된 또 하나의 문헌으로는 北宋 元豐4年(1081) 張商英¹⁷⁾이 쓴 「重建關將軍廟記」가 있다. 이는 지의가 도를 깨치는 과정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뿐 관우가 옥천산에 자리를 잡은 大力鬼神과 그 眷屬들 중 하나이며, 지의의 법력에 감화 받아 절을 짓고 오계를 받아 불제자가 되는 등은 모두 『佛祖統紀』와 같은 내용이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맨 마지막 문구다.

“이런 인연으로 관우의 신령도 사당에서 제사를 흠향하게 되었고, 천리 내외에 사당이 지어졌다.”¹⁸⁾

즉, 關廟가 옥천사보다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앞 문헌들, 특히 唐代의 자료들에서는 모두 옥천사가 만들어지기 이전 옥천산에 이미 관우 사당이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물론 관우 사당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던 것이 관우가 五戒를 받고 사찰 수호신으로 등장하는 宋代 자료들에 이르면 이때부터 관우 사당이 널리 퍼지고, 제사도 흠향하게 된 것으로 바뀐다. 여기서 모종의 인위적인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불교계가 본격적으로 관우를 신앙의 대상으로 흡수하기 시작했

17) 張商英(1043~1122)은 蜀州 新津人으로, 字는 天覺이고, 號는 無盡居士이다. 宋代 佞佛의 대표인물 중 하나인데, 元人 郝瑗은 그에 대해 “거의 괴력난신의 일이 아니더냐(不幾乎語怪力亂神之事歟)”며 기롱했다. 그렇지만 장상영은 當陽의 관우 신화 演變과 전파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郝瑗, 「建關眞君廟記」, 胡聘之 撰, 『山右石刻叢編』 卷21, 『石刻史料新編』 第18冊, 新文豐出版公司, 1982.

18) 李元才 續修, 釋亮山 補輯, 『玉泉寺志』 卷4, 「詞翰補遺」, 白化文·張智 主編, 『中國佛寺志叢刊』 第14冊, 廣陵書社, 2006, 441~444쪽. “以是因緣, 神亦廟食千里, 內外廟供云.”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신앙으로서의 관우를 지우고, 가람 수호신으로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듯 지의대사가 옥천사를 창건했을 때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민중들이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신앙 대상(지역신)과의 충돌이 있었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교적 윤색이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우 사당은 옥천사에 벗어나 독립된 존재였고, 그 제사도 옥천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관우가 옥천사 건립에 도움을 주었다는 또 다른 이야기는 불교가 형주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면서 민중들의 지역 귀신 숭배 심리를 이용했음을 보여 준다. 거기다 형주 華容 陳氏 출신¹⁹⁾인 천태종의 智顓을 끌어넣으면서 그 충돌을 자연스럽게 상쇄하려고 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불교계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민간에서 숭상하는 관우의 신력과 함께 그가 동향인 지의를 통해 佛門에 귀의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2. 神秀의 관우 顯彰

다음으로 관우 신성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승려는 唐나라 則天(690~705) 연간의 국사 神秀(605~706)다. 天台智顓 이후 한 세기가 지나 등장한 大通神秀는 북종선의 창시자로서 중국 禪宗史에서 큰 업적을 남긴 고승이다. 그는 五祖 弘忍의 휘하에서 수행하여 洞山法間을 받은 뒤 형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옥천산 동쪽에 있는 楞迦峰에 大通禪寺를 건설하고 관우를 護法 迦藍神으로 삼아 20년 동안 불법을 전했다.²⁰⁾ 다음은 관우와 신수가 관련된 기록이다.

“唐 儀鳳末年: 678) 神秀가 當陽 玉泉山에 와서 절을 지었다. 그 지방 사람들이 關公을 공경하고 제사지내자, 신수는 그 사당을 헐어버렸다. 갑자기 陰雲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는데, 關公이 칼을 빼들고 말을 타고 뛰어

19) 普濟 撰, 『五燈會元』 卷2, 中華書局, 1984, 120쪽.

20) 焦磊, 「關羽神聖化過程的歷史考察—以關帝廟爲核心」,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28쪽.

오르는 것이 보였다. 신수가 우러러보며 물었더니 관공은 예전 일을 다 말했다. 곧 땅을 파고 절을 짓고는 本寺伽藍을 삼았다. 이로부터 각 절에 流傳되었다.”²¹⁾

徐道の 『歷代神仙通鑿』에 나와 있는 이 기사는 불교계와 관우의 관계에서 또 다른 시사점을 준다. 신수가 형주를 찾아와 자리를 잡은 곳은 大通寺였는데, 이곳이 玉泉寺인지는 확실치가 않다. 하지만 절의 위치가 인근이었으며, 천태도량으로 이름이 높았던 옥천사와 신수의 명성으로 보아 두 사찰이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당시 불교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신수가 大通寺를 짓고 한 일은 관우 사당을 없앤 것이다. 이 기록만으로 보자면, 天台智顓 이후로 가람신으로 모시던 관우가 적어도 신수 때에는 실질적으로 일반 백성들을 불교로 흡수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형주 지역 백성들이 관우를 깊이 숭상하는 모습은 신수 입장에서 그리 기꺼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天台智顓 때야 厲鬼로서 인식되던 관우 신령이 이때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인 신앙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수는 과감히 사당을 헐어버리지만, 이내 관우의 顯靈이라는 강한 저항을 받게 된다. 결국 신수는 관우 사당을 완전히 사찰 안으로 흡수하는 결단을 내린다. 지의가 가람신으로 수용하면서도 옥천사 밖에 별도의 관우 사당을 지은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하겠다.

형주를 기반으로 명성을 드높이던 神秀는 만년에 武則天에 의해 장안에 불려가 왕사의 예우를 받았다. 그는 낙양과 장안을 중심으로 법을 펼치며 兩京法主, 三帝國師의 칭호도 얻었다. 그런 그가 관우를 추앙하여 황궁 사찰에 관우 사당을 별도로 모셔서 공양한 것은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신수 이후 불교계는 기존의 관우의 이미지에다 자체의 인과 관념을 결합하여 권선징악의 신권을 갖춘 신격화된 관우를 재창조했다. 이에 관우의 塑像은 여타 부처와 어개를 나란히 하는 사찰의 수호신이 되었으며, 독자적으

21) 徐道, 『歷代神仙通鑿』 卷14, 北京出版社, 2000. “(唐儀鳳末年)神秀至當陽玉泉山, 創建道場. 鄉人祀敬關公, 秀乃毀其祠. 忽陰雲四合, 見公提刀躍馬, 秀仰問, 公具言前事. 即破土建寺, 令爲本寺伽藍. 自此各寺流傳.”

로 伽藍殿에 捧供되는 형태로까지 발전했다. 원래 가람전은 불교를 수호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기념하여 모시는 장소이다. 元代 初에 이르게 되면, ‘관우 護持 佛法說’은 官方의 인가를 얻는 데까지 이르렀다. 元 世祖(1271~1294)는 정식으로 관우를 伽藍神으로 삼고, 宮中에 佛事를 하고는 士兵에게 명하여 관우 神像에 절하게 했다.²²⁾

바야흐로 唐宋代를 거치면서 관우는 天台宗派의 호법신을 넘어 그 영향력이 전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백성들의 관우에 대한 숭배도 자각적인 신앙에서 강제적인 복종으로 변하게 된다. 이는 관우가 역사적 인물로부터 종교적 神靈으로의 변화가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III. 도교의 정착 과정과 관우의 신격화

1. 해주 염전과 ‘關羽大破蚩尤’ 전설

도교는 ‘無爲自然’을 모토로 하는 도가 철학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에 위배되는 ‘不老長生’으로 탈바꿈하며 그 종교적 생명력을 만개시킨다. 이를 토대로 도교는 중국의 자생 종교로, 특히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의 도교는 상고시대의 巫術과 秦漢의 神仙方術을 거쳐 후한말기에 五斗米敎와 太平道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 후 도교가 대표적인 민중 종교로 자리한 것은 唐代로 추정된다. ‘安史의 亂’(755~763)을 즈음하여 지방에 근거를 둔 藩鎮 세력이 황권을 넘볼 정도로 강력해지자 도교는 권력을 흐름을 따라 각 지방으로 흩어졌다.²³⁾ 이 과정에서 각 지방의 민간신앙과 접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교의 민간화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종교가 일반 백성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면 그들의 시선을 끌 거대한 法力과 靈

22) 『元史』卷77, 『祭祀志』. 包詩卿, 「明代關羽信仰及其地域分布研究」,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5, 5쪽.

23) 구은아, 「중국의 關公信仰 고찰-관공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 관공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연구』 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3, 240쪽.

뿔한 전설을 기술적으로 활용해야만 했다. 도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관우는 호복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신으로서, 대표적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성장해 있었다. 도교는 그런 관우를 놓치지 않았다.

도교에서의 關羽 神格化를 이해하는 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山西省 解州 鹽田²⁴⁾ 전설이고, 또 하나는 宋代 황제 徽宗의 선양이다.

우선 『關王事跡』의 기록을 보자. 『關王事跡』은 至大元年(1308) 巴郡隱士 胡琦가 편찬했는데, 明清代 關羽 聖跡 서적의 출발이 되는 책이다.²⁵⁾

“宋 大中祥符7年(1014)에 解州에서 鹽池의 물이 줄어 출하량이 줄었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황제는 사자를 보내 확인하게 했는데, 그가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신이 자칭 城神이라 하는 한 노인을 만났는데 제게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지금 鹽池의 재앙은 蚩尤 때문이다’라고 하더니 사라졌습니다.” …… 이에 張天師를 불러 치우의 일을 얘기했다. 그가 대답하길, “이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忠烈之士는 죽어서 神이 된다고 했습니다. 蜀나라 장군 關某는 충성스럽고 용맹합니다. 폐하께서 기도하여 부르시면 꼭 치우를 토벌하는 陰功이 있을 것입니다.” 황제가 묻기를 “그는 어떤 신이냐?” 대답하길, “玉泉 荊門의 사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 갑자기 하루는 검은 구름이 鹽池 위에서 일어나더니 큰 바람이 세차게 불고 천둥번개가 쳤다. 그 지역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공중에서 병기가 부딪히고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얼마 뒤 온

24) 전해지는 말로, 黃帝가 中冀에서 蚩尤를 잡아 죽여 사지와 머리를 다른 곳으로 흩어버렸기에 그 곳 이름이 해주라고 한다. 그의 피가 변해서 鹽池가 되었다고 한다. 朱國禎, 『湧幢小品』 卷20, 「關雲長」, 上海古籍出版社, 2012. “山西鹽池在解州, 雲長所產處也. 相傳黃帝執蚩尤於中冀, 戮之, 肢體身首異處, 而名其地曰解其血化爲鹵, 遂成池.”

25) 元 仁宗 延祐3年(1316) 봄, 山西 太原平遙 梁輓(字 仲祿)이 當陽의 책임자가 되어 왔다가 胡琦의 명성을 듣고 연회에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선조 瓊公이 關聖 顯靈의 도움을 받아 적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려주자, 胡琦가 감동해서 『關王事跡』을 지었다. 『關王事跡』은 일종의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저술이다. 관우 생전의 事跡과 사후의 顯靈 기록, 그리고 역대 關王 封祀와 廟記와 碑記를 바탕으로 지어졌다. 총 5권인데, 靈異, 制命, 碑記, 題詠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玉泉志』 3권이 부록으로 붙어 있다. 배규범·민관동, 「정치적 관점에서 본 관우 신격화의 역사적 변모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49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4, 327쪽.

무가 걷히고 하늘빛이 맑아졌다. 鹽池의 물도 예전으로 돌아와 백리까지 흘렀다. …… 명에 따라 有司는 사당을 수리하고 해마다 제사를 받들었다.”²⁶⁾

이 이야기의 기본 내용은 산서성 해주의 鹽池에 가뭄이 들자 황제의 조서를 받고 관우가 張天師를 도와 치우를 물리침으로써 염전이 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교가 관우를 직접적으로 수용하여 만든 이른바 ‘關羽大破蚩尤’ 전설이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문헌들에 산재되어 있어 그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宋代 佚名의 『大宋宣和遺事』²⁷⁾을 비롯하여, 明代 王世貞의 『彝州續稿』²⁸⁾,

- 26) 胡琦 撰, 『關王事跡』, 文物出版社, 2000. “宋大中祥符七年, 解州奏鹽池水減, 虧失常課. 上遣使往視, 還報曰“臣見一父老, 自稱城神, 令臣奏云, 爲鹽池之患者, 貴尤也. 忽不見.” 上乃詔呂夷簡至解池致祭, 事訖之夕, 夷簡夢神人戎衣, 怒而言曰: “吾查尤也, 主此鹽池, 今者天子立軒轅祠, 車輪輾, 吾仇也. 我爲此不平, 故絕池水, 若急毀之, 則已.” 夷簡還, 白其事, 王欽若曰: “貴尤, 牙附中也, 信州龍虎山張天師, 能使鬼神, 若令治之, 貴尤不足慮也.” 於是召天師赴闕, 上與之論貴尤事, 對曰: “此必無可憂, 自古忠烈之士, 沒而爲神, 蜀將軍關某, 忠而勇. 陛下禱而召之, 以討蚩尤, 必有陰功.” 上問: “是何神也?” 對曰: “食廟玉泉之荊門.” 上隨其言, 天師於是禁中書符焚之. 頃刻, 一美髯人猿著甲佩劍, 浮空而下, 拜於殿庭. 天師宣諭上旨, 答曰: “敢不奉招. 容臣會嶽渙神兵, 爲陛下清蕩之.” 俄失所在. 上與天師肅然起敬. 左右從官悉見悉聞. 莫不贊歎. 忽一日, 黑雲起於池上, 大風暴至, 雷電晦暝, 居人震恐, 但聞空中金戈鐵馬之聲, 久之, 雲霧收斂, 天色晴朗, 池水如故, 周阻百里, 守臣王忠具表以聞, 上大悅. 遣使致祭. 隨命有司修葺祠宇, 歲時奉祀.”
- 27) 佚名, 『大宋宣和遺事』, 中國古典文學出版社 1954, 15쪽. “崇寧五年夏, 解州有蛟在鹽池作祟, 布氣十餘裏, 人畜在氣中者, 輒皆嚼齧, 傷人甚衆. 詔命嗣漢三十代天師張繼先治之. 不旬日間, 蛟祟已平. 繼先入見, 帝撫勞再三, 且問曰: “卿此剪除, 是何妖魅?” 繼先答曰: “昔軒轅斬蚩尤, 後人立祠於池側以祀焉. 今其祠宇頓弊, 故變爲蛟, 以妖是境, 欲求祀典臣賴聖威, 幸已除滅.” 帝曰: “卿用何神, 願獲一見, 少勞神麻.” 繼先曰: “神即當起居聖駕.” 忽有二神現於殿庭: 一神絳衣金甲, 青巾美須髯. 一神乃介冑之士. 繼先指示金甲者曰: “此即蜀將關羽也.” 又指介冑者曰: “此乃信上白鳩山神石氏也.” 言訖不見. 帝遂褒加封贈, 仍賜張繼先爲視秩大夫虛靖真人.”
- 28) 王世貞, 『弁州四部稿』, 『彝州續稿』, 臺灣商務印書館, 1983. 劉海燕, 「關羽刑象與關羽崇拜的演變史論」,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31쪽 재인용. “宋政和中, 解州池鹽至期而敗, 帝召虛靜真人詢之. 奏曰: “此蚩尤神暴也.” 帝曰: “誰能勝之?” 曰: “關帥可, 臣已救之矣.” 尋解州奏大風霆擊巨木, 已而箕, 則池水平若鏡, 鹽復課矣. 帝召虛靜之, 曰: “關帥可得見乎?” 曰: “可.” 俄而帝懼, 拈一崇寧錢投之, 曰: “以爲信.” 明日, 封崇寧真人.”

朱國禎의 『湧幢小品』²⁹⁾, 張宇初의 『正統道藏』³⁰⁾, 佚名의 『三教源流搜神大全』³¹⁾, 清代的 『蒲州府志』³²⁾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소설 『水滸傳』 第112回³³⁾와 元代 雜劇 「關大王大破蚩尤」³⁴⁾와 明代 脈望館(趙琦美書齋) 抄 內府本 「關雲長大破蚩尤」³⁵⁾ 등의 문예물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29) 朱國禎, 『湧幢小品』 卷20, 「關雲長」, 上海古籍出版社, 2012. 劉海燕, 「關羽刑象與關羽崇拜的演變史論」,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31쪽 재인용. “山西鹽池在解州, 雲長所產處也. 相傳黃帝執蚩尤於中冀, 戮之, 肢體身首異處, 而名其地曰解其血化為鹵, 遂成池. 宋崇寧中, 池水數潰, 張靜虛攝雲長之神治之, 池鹽如故. 雲長見像於廷, 周垣守之. 每大雨, 輒能敗鹽, 必禱於神而止. 蚩尤以其血為萬世利, 而雲長周旋, 永此利源, 同於煮海, 奇矣奇矣!”
- 30) 張宇初, 『漢天師世家』 卷3, 『正統道藏』 第34冊, 天津古籍出版社, 1987. “……崇寧二年, 解州奏鹽池水溢. 上問道士徐神翁, 對曰: “蛟孽為害, 宜宣張天師.”……十二月望日召見, 上曰: “解池水溢, 民罹其害, 故召卿治之.” 命下即書鐵符, 令弟子祝永佑同中官投解池岸圯處. 逾頃, 雷電晝晦, 有蛟孽斫水裔. 上問: “卿向治蛟, 用何將? 還可見否?” 曰: “臣所役者關羽, 當召至.” 即握劍召於殿左, 羽隨見, 上驚擲崇寧錢與之. 曰: “以封汝.” 世因祀為崇寧真君. 明年三月, 奏鹽課復常.”
- 31) 佚名, 『三教源流搜神大全』, 『郎園先生全本書』 卷3. 趙山林, 「南北融合與關羽形象的演變」, 『文學遺產』 2000年04期, 2000.7, 111쪽. “言訖, 師召關將軍至矣, 現形於帝前. 帝云: “蚩尤竭絕鹽池之水.” 將軍奏曰: “陛下聖命, 敢不從之! 臣乞會五嶽四瀆名山大川所有陰兵, 盡往解州, 討此妖鬼. 若臣與蚩尤對戰, 必待七日, 方剿除得. 伏願陛下先令解州管內戶民三百裏內, 盡閉戶不出, 三百裏外盡示告行人, 勿得往來, 待七日之期, 必成其功, 然後開門如往. 恐觸犯神鬼, 多致死亡.” 帝從之. 關將軍乃受命而退. 遂下詔, 解州居民悉知. 忽一日, 大風陰暗, 白晝日夜, 陰雲四起, 雷奔電走, 似有鐵馬金戈之聲, 聞空中叫噪. 如此五日, 方且雲收霧散, 天晴日朗, 鹽池水如故, 皆關將軍力也. 其護國祐民如此. 帝嘉其功, 遣王欽若賚詔往玉泉山祠下致享, 以謝神功. 復新其廟, 賜廟額曰‘義勇’, 追封四字王, 號曰武安王. 宋徽宗加封尊號, 曰‘崇寧至道真君’.”
- 32) 周景柱 等, 『蒲州府志』 卷24. 趙山林, 「南北融合與關羽形象的演變」, 『文學遺產』 2000年04期, 2000.7, 111쪽 재인용. “唐李晟鎮河東日, 夜夢偉人來謁, 自言: “漢前將軍關某也. 蚩尤為亂, 上帝使某征之, 顧力弱不能勝, 乞公陽兵助我. 來日午時約與彼戰, 我軍東向, 彼西向.” 語訖而去. 晨早起, 心異所夢, 令軍士列陣東向如所戒. 是日天氣晶朗, 至午, 忽陰雲四合, 大風驟作, 沙石飛起. 晨曰: “是矣.” 即令鳴鼓發矢, 如戰鬥狀. 久之, 風止雲豁, 視士卒似多有傷者. 其夜復夢來謝云: “已勝蚩尤.””
- 33) 『水滸傳』 第112回, 北京燕山出版社, 2015. “……潑風刀起, 似半空飛下流星. 青龍刀輪, 如平地奔馳閃電. 馬蹄撩亂, 鑾鈴響處陣雲飛. 兵器相交, 殺氣橫時神鬼懼. 好似武侯擒孟獲, 恰如關羽破蚩尤.”
- 34) 郭素媛, 「關羽崇拜與關羽形象的演變及詮釋」, 『齊魯師範學院學報』 第27卷第5期, 2012.10, 152쪽.
- 35) 鄭振鐸 編, 『脈望館抄校本古今雜劇』, 「關雲長大破蚩尤」, 『古本戲曲叢刊』 第4輯,

이들을 종합해볼 때, 뚜렷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인된다. 우선 차이점이 라고 하면 이야기의 배경, 즉 사건 발생 시기와 원인이다. 시기의 경우 크게 보자면, 宋 ‘眞宗 大中祥符7年(1014)說’과 宋 ‘徽宗 崇寧5年(1106)說’로 나눌 수 있다. 사건 발생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해주 관우 사당의 건립 시기와 함께 논의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眞宗代 說’인 『關王事跡』의 경우, 玉泉 荊門의 사당에 있는 관우 신령을 불러오며, 일이 끝난 뒤 황제가 유사에게 명해 사당을 중수하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1014년 이전에 관우 사당이 형주 옥천산에 있었다는 말이다. 여기에 대해 宋나라 鄭咸이 쓴 「元祐重修廟記」에서는 “解州 關帝廟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元祐(哲宗1086~1094) 연간에 重建되었다고 하니, 처음 건립은 그 이전일 것이다.”라고 한 반면, 明代 韓文이 쓴 「正德修廟記」에서는 “명확하게 “宋 眞宗 祥符甲寅(大中祥符7年)勅建”이라고 했는데, 이는 해주의 가뭄을 해결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했다.³⁶⁾ 여기서 韓文이 말한 “勅建”이 중건인지 창건인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실치 않다.

한편 ‘徽宗代 說’은 宋代 문헌 『大宋宣和遺事』에서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제8대 徽宗 崇寧5年(1106) 여름” 발생한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아울러, 사건의 원인을 軒轅에게 죽임을 당한 그를 위무하는 사당이 낡고 버려져서라고 했다. 이는 ‘진종대 설’에서 말한 鹽池에 원수인 軒轅의 사당을 지은 것에 치우가 앙심을 품었다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張繼先을 視秩大夫虛靖眞人으로서 삼았다는 언급을 하면서도 관우에 대해서는 간단히 “褒加封贈”이라고만 했다. 한편 張宇初의 『正統道藏』에서는 1103년에 발생한 사건을 12월에 張天師를 불러 처리했고, 이듬해에는 염전 생산량이 회복되었다고 했다. 물론 이 기사에서도 장천사가 鐵符를 解池에 던지는 등 관우보다 장천사에 포커스를 맞춘 느낌을 준다. 이 외에도 ‘휘종대 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장천사가 虛靜先生이란 호를 하사받는 시기를 徽宗代로 기록하고 있다. 『宋史』의 “徽宗 崇寧4年(1105) 5月 壬子日, 張繼先에게

商務印書館, 1958. “該故事稱: 宋朝仁宗時, 崑尤作祟, 使解州鹽池幹涸, 朝廷命寇准請張天師來京詢問, 方知其故. 張天師又使人請玉泉寺關羽驅邪, 最後戰敗崑尤. 範仲淹奉命爲關羽在解州立廟, 關羽初被封爲‘武安王神威義勇’, 再封爲‘破崑尤崇寧眞君’.”

36) 朱一玄 等 編, 『三國演義資料彙編』, 南開大學出版社, 2003, 100쪽.

虛靖先生의 호를 하사하고……6月 丙子日, 解州 池鹽을 회복했다.”³⁷⁾, 『關帝事跡征信編』의 “三十代 天師 張繼先은 宋 崇寧연간에 조서에 응해 解池의 재앙을 해결하여 虛靜先生이라는 호를 받았다.”³⁸⁾가 그것이다.

이 외에도 사건 발생 원인으로는 치우가 물길을 끊어 가뭄이 들었다는 것과 반대로 홍수를 일으켜 물이 불어나게 한 것이 있다.³⁹⁾ 가뭄이든 홍수든 모두 물의 작용이란 점에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해주 염전의 특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문헌들의 공통점은 해주 염전이 주배경이며, 도교 天師가 관우를 부려서 문제를 해결하며, 이후 관우는 도교의 신으로 등극한다 구도이다. 해주는 관우의 고향(현 山西省 運城市 解州縣 常平村)으로 중국 최대 소금 생산지 중 하나다. 唐代 각종 典章制度의 연혁을 담은 王溥의 『唐會要』에는 해주 염전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염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胃海와 胃井과 弩雄으로 이루어진 것을 未鹽이라 하는데, 『周官』에서 散鹽이라고 한 것이다. 반면에 물을 끌어다가 만든 것을 潁鹽이라 하는데, 『周官』에서 말한 盛鹽이다. 解州 解縣과 安邑 두 鹽池는 물을 끌어다 만든 潁鹽에 속한다. 解池는 “한 자 높이로 물을 대고, 남풍이 불며, 태양이 작열하면 금새 소금이 만들어진다.” 만일 “적당한 바람과 일조량을 기다리지 않고 물을 대서 만들면 소금의 맛이 쓰고 입에 맞지 않게 된다.”⁴⁰⁾

-
- 37) 脫脫·阿魯圖 等 編, 『宋史』, 「本紀二十」, 中華書局, 1985, (<http://www.uus8.org/4/02/020/020.htm>). “崇寧四年五月壬子, 賜張繼先號虛靖先生……六月丙子, 復解池鹽.”
- 38) 『關帝事跡征信編』卷14, 『靈異』, 魯愚 編, 『關帝文獻彙編』第4冊, 國際文化出版公司, 1995. “三十代天師張繼先, 宋崇寧中應召平解池之祟, 賜號虛靜先生.”
- 39) 鹽池 이상의 원인으로 ‘가뭄’을 언급한 문헌은 胡琦의 『關王事跡』과 朱國禎의 『湧幢小品』, 『三教源流搜神大全』이고, ‘홍수’를 언급한 문헌은 張宇初의 『正統道藏』이며, 기타 해코지라고 한 문헌은 王世貞의 『弇州四部稿』와 『大宋宣和遺事』가 있다.
- 40) 王溥, 『唐會要』卷23, 「武成土廟」, 上海古籍出版社, 2006. “鹽之類有二: 胃海、胃井、弩雄而成者, 曰未鹽, 『周官』所謂散鹽也. 引池而成者, 曰潁鹽, 『周官』所謂盛鹽也. 而解州解縣、安邑兩池屬於“引池爲鹽.” 解池“灌水盈尺, 鼓以南風, 暴以烈日, 須臾成鹽……不俟風日之便, 積水而成, 厚灌以水, 味苦不適口.””

즉, 解池의 염전은 물을 끌어다가 만든 顯鹽(盛鹽)이라 적당한 風雨와 日照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가뭄과 장마는 모두 해주 소금 생산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진시황 때부터 대대로 역대 왕조는 국방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鹽稅를 통해 충당해 왔다. 그러기에 元·明·清 三朝에 모두 이곳에 河東都轉運鹽使司를 설치하여, 解鹽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하지만 자연 재해에 약한 顯鹽의 특성상 문제는 항상 발생했다. 실제 宋代부터 淸 高宗 乾隆(1736~1795)까지 7백여 년 동안 鹽池에는 20차례나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사람들은 鹽池의 이상 현상을 요괴의 장난으로 보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신령을 통해 이를 물리치고자 했다.⁴¹⁾

흥미롭게도 그것을 이끈 사람이 道教 術士들이었다. 마침 宋 徽宗 승녕(1102~1106) 연간에 수해로부터 염전을 지키려는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때 도교 종파 중 세력이 컸던 正一派 도사들은 관우가 염전을 지켰다는 ‘關羽大破蚩尤’ 전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⁴²⁾ 즉, 염전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선양하기 위해 도교는 해주 지역의 전설적 영웅인 관우를 끌어왔다.⁴³⁾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송대에 이르면 관우는 도교에서 숭배되는 신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이다. 또한 관우는 도교이론서, 예를 들어 『關帝覺世眞經』, 『關帝明聖經』, 『戒士子文』, 『關帝全書』 등에 등장하여 도교적 색채를 한껏 띠게 된다. 도교의 扶隄降神하는 방법들을 언급한 이 책들에서 관우는 한결같이 降魔神으로서 등장한다.⁴⁴⁾ 한편 북방에서

41) 정연학, 「중국의 武聖, 관우: 명청대 이후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6집, 인하대 학교박물관, 2003, 64쪽.

42) 이마이즈미 준노스케(今泉 恂之介), 이만옥 역, 『관우』, 예담, 2008, 25~27쪽.

43) 明나라 沈德符의 『萬曆野獲編』에는 “唐 大曆(766~779) 연간에 鹽神의 사당을 건립하고 후에 亭과 기념비를 세웠다. 또 唐 貞元13年(797)에 鹽神의 영험함을 빛내는 碑를 세우고 작위를 내렸다. 宋 大中祥符7年(1014)에 鹽池가 크게 훼손되었는데, 壯繆 關羽가 陰兵을 이끌고 치우와 大戰을 벌여 그를 격퇴시키니 비로소 그를 위해 사당을 지었다. 또한 關羽神은 鹽池의 功으로 마침내 鹽神을 뛰어넘었다. 관우가 解州人이기 때문에 그의 신위와 명성은 鹽神을 초월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盧曉衡 編, 『關羽、關公和關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230쪽. 이는 도교의 지지를 통해 관우가 解州 鹽神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다.

44) 於志斌, 「關羽: 儒稱聖, 釋稱佛, 道稱天尊-文化的“變異複合”」, 『蘇州大學學報(哲

가장 큰 正一派 道館은 북경에 있는 東嶽廟 伏魔大帝殿이었다. ‘伏魔大帝’는 명나라 神宗 萬曆22年(1594)⁴⁵ 하사받은 관우의 봉호 ‘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을 뜻한다. 이는 明代가 되면 도교에서는 관우를 최고 반열의 신으로 대우했음을 반증한다.

2. 宋代 徽宗의 追封

도교에서 관우가 본격적으로 숭상을 받게 된 것은 송대에 이르러서이다. 송대는 重文輕武의 국가 기조로 인해 갈수록 국력이 약해지던 시대였다. 이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 통치계급은 문제의 해결책을 부국강병보다는 神靈의 保佑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결국 關羽는 종교계의 지극한 推崇과 통치자의 加封을 받아 명성이 날로 높아갔다. 자연 그를 모시는 廟宇도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북송 제8대 徽宗(재위1100~1125)은 독실한 도교 추종자였다. 이 시기 도교는 황실의 永續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국가 종교로서의 위치를 갖추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관우는 불교에서도 가람신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었다. 봉건 통치자는 이러한 관우의 종교적 색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봉건 통치자가 선택한 방법은 封贈을 통한 顯彰이었다.

관우가 받은 봉호는 크게 ‘侯(漢壽亭侯, 壯繆侯) → 公(忠惠公) → 王(武安王, 英濟王) → 帝(協天護國忠義大帝, 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관우 생전과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받은 ‘漢壽亭侯’와 ‘壯繆侯’를 제외하면, 公·王·帝야말로 관우 신격화의 심화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公과 王의 두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게 한 통치자가 바로 徽宗이다. 崇寧1年(1102), 휘종은 등극과 함께 북방에서 거란족인 遼

『學社會科學版』1996年第1期, 90쪽.

45) 하지만 신하들의 논란이 있어 실제로는 熹宗 天啓4年(1624) 7月, 太常寺 題請을 거쳐 정식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劉侗, 『帝京景物略』卷3, 「關帝廟」, 故宮出版社, 2013. “萬曆四十二年十月十一日, 司禮監太監李恩齋捧九旒冠、玉帶、龍袍、金牌、牌書敕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 於正陽門祠, 建醮三日, 頒知天下. 然太常祭祀, 則仍舊稱……天啓四年七月, 禮部覆題得旨, 祭始稱帝.”

와 여진족인 金이 세력을 떨쳐 사회가 혼란해지자 관우에게 ‘忠惠公’의 시호를 내렸다. 侯를 넘어 公의 작위를 최초로 받은 봉호이다. 또한 이는 관우의 봉호에서 처음으로 忠이 들어가는 것으로, 관우 추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어서 崇寧3年(1104)이 되면, 관우가 백성을 위해 요괴를 물리치고 재앙을 없애준다 하여 ‘崇寧眞君’이란 시호를 추증하고, 이와 함께 해주 서관의 관묘에 崇寧殿을 증축한다.⁴⁶⁾ 崇寧은 휘종의 연호이며, 眞君은 도교식의 존호이다. 이때부터 관우가 본격적으로 道敎的 神格으로 거듭났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다. 이듬해 崇寧4年(1105), 휘종은 ‘崇寧至道眞君’으로 고쳐 봉한다. 다시 大觀2年(1108)이 되면, 휘종은 ‘武安王’으로 봉하여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호국신으로 삼는다.⁴⁷⁾ 드디어 관우가 ‘公’에서 ‘王’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宣和5年(1123), 휘종은 다시 ‘義勇’을 붙여 ‘義勇武安王’으로 가봉한다. 이는 武成王으로 숭상 받던 姜太公보다 중요한 인물로 대우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⁴⁸⁾ 唐代 德宗 建中3年(782) 강태공을 주신으로 모신 武成王廟에 64명 중 한 명으로 從祀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었다. 이는 明나라 神宗代의 봉호 ‘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와 청나라 文宗代의 봉호 ‘忠義神武靈祐神勇護國保民關聖大帝’의 시발점이 되었다.⁴⁹⁾

결국 도교는 해주 鹽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관우를 끌어들이므로써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관우는 통치자의 지속된 추봉을 통해 도교적 신격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46) 李瀾, 『星湖僊說』 제9권, 「關王廟」,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4, 56쪽.

47) 徐松 編, 『宋會要輯稿』, 「禮之二十」, 上海古籍出版社, 2009. “徽宗 崇寧元年十二月封武惠公, 大觀二年進封武安王.”

48) 盧曉衡 主編, 『關羽關公和關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82쪽.

49) 文宗은 咸豐3年(1853), 月城廟에 있던 관우의 神位에 도교의 神名을 加封하여 그곳이 민간도교의 중심이 되게 했다. 아울러 의례를 小祀였던 제사를 中祀에 포함시켰다. 이경선, 「관우신앙에 관한 고찰」, 『논문집』 8집, 한양대, 1974, 14쪽.

IV. 유교의 통치사상 확립과 관우의 신격화

1. ‘儒將’ 關羽와 春秋大義

유교는 불교나 도교와는 달리 현세적 이데올로기다. 그러기에 공자의 사상은 봉건사회에서 국가통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오랜 기간 동안 통치자의 사랑을 받아왔다. 유가는 살벌하고 폭력적인 武士보다는 겸손한 君子와 도덕적 성인을 선양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사적 실존 인물 관우는 유가와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관우가 대대로 각 계층 사람들의 崇敬을 받으면서 점차 신격화 경향을 보이자 뒤늦게 그의 효용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유교에서 관우를 활용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를 ‘儒將’으로 각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관우가 기존에 갖고 있던 江湖豪俠의 이미지와 불교와 도교의 종교적 이미지를 넘어서 유가만의 색채를 입히는 작업이었다. 역사 인물로서의 관우와 신격화된 관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신으로서의 관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정신을 전달해야만 하는 일종의 문화적 존재였다. 관우가 단순히 천하의 용장으로서 “만인을 대적할(萬人敵)”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儒將으로서 이미지를 갖추게 될 때, 그가 이끄는 군대는 仁義의 군대이자 威武의 군대가 된다. 이는 대대로 兵家에서 숭상해온 관우 신령이 유가의 옷을 입으면서 “武聖”으로 대변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武聖”이란 “文聖” 孔子를 옆두에 둔 국가 典祀 시스템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관우가 “武聖”으로 불리는 주요 이유는 그의 출중한 무예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갖춘 선명한 道德精神에 있었다. 이렇듯 도덕에 대한 숭상은 바로 유교가 만든 중국 고대 문화의 본질적인 정신이기도 했다.⁵⁰⁾

유교가 재창조한 관우의 儒將 이미지는 특별히 공자의 春秋大義와 연결되어 있다.

50) 陳曉英, 「中國傳統哲學的三個觀念及其現代價值」,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1卷第1期, 2009, 24~27쪽.

“옛날 列國에는 史官이 있어 時事의 기록을 맡았다. 『春秋』는 魯나라 역사일 뿐이다. 그런데 공자가 筆削을 가하여, 역사 외에 마음을 전하는 전범이 되었다. (이후) 맹자가 宗旨를 밝혔기 때문에 천자의 일이 되었다. 周나라의 도가 쇠미해지고 기강이 풀어지자, 亂臣과 賊子가 당시에 발을 붙이고, 사람이 욕심이 방자해지고 하늘의 이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공자가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지 않았으면 누가 그리 했겠는가? …… 한 글자의 기림[褒寵]은 황제의 선물보다 좋았고, 한 마디 꾸짖음[貶辱]은 저자거리의 매질보다 심했다. … 百王의 法도와 萬世의 기준이 모두 이 책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五經 중 『춘추』를 法律의 판례로 여겼던 것이다.”⁵¹⁾

이 글은 송대 유학자 胡安國(1074~1138)이 지은 『春秋傳序略』의 한 대목이다. 그는 『춘추』의 가치를 존중하여 『春秋胡氏傳』 30권을 짓는 등 평생 春秋學에 몰두했다. 사실 隋唐代 이전 사람들은 『春秋』를 『論語』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논어』는 당시 일종의 중고등학교 교재일 뿐이었고, 『춘추』는 대학의 특별 강좌였다.⁵²⁾ 그러던 것이 송대 성리학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王安石은 學官의 과목 중 춘추를 제외하였고, 朱熹는 四書を 중심으로 성리학 경전을 재편하면서 『논어』는 유가 대표경전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자의 입장에서 『춘추』는 周 왕조를 부활하고, 濟世의 꿈을 이루기 위한 典範으로 쓰인 책이다. 그런 점에서 “나를 알리는 것도, 나를 죄주는 것도 『춘추』일 것이다(知我罪我, 其惟春秋).”⁵³⁾라는 공자의 말은 의미가 남다르다.

그럼 胡安國의 말처럼 『춘추』의 “한 글자 칭찬은 황제가 하사한 선물보다 좋으며, 한 마디 비판은 저자거리의 매질보다 더한 것”, 이런 칼날 같은 春秋의 大義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尊王攘夷의 가치관이었다.

51) 胡安國, 『春秋傳序略』, 巴蜀書社, 1984, 1쪽. “古者, 列國有史官, 掌記時事. 『春秋』, 魯史爾. 仲尼就加筆削, 乃史外傳心之要典也. 而孟氏發明宗旨, 故爲天子之事者, 周道衰微, 乾綱解紐, 亂臣賊子, 接跡當世. 人欲肆而天理滅矣. 仲尼, 天理之所在, 不以爲己任而誰可? ……是故假魯史以寓王法, 撥亂世反之正……一字之褒寵踰華袞之贈, 片言之貶辱過市朝之撻. …百王之法度, 萬世之准繩, 皆在此書. 故君子以爲‘五經’之有『春秋』, 猶法律之有斷例也.”

52) 錢穆, 『兩漢經學今古文評議』, 商務印書館, 2001, 1쪽.

53) 阮元, 『十三經注疏』, 『孟子』, 『滕文公下』, 中華書局, 1980, 2714쪽.

『春秋』가 천명한 尊王攘夷 가치관은 북송 말년에 오면 특수한 시대적 의의를 갖고 있었다. 거란과 여진, 그리고 西夏로 대변되는 북방 오랑캐들의 부상으로 송나라는 한족 역사상 최악의 치욕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남송 1대 高宗은 천도 후 즉시 胡安國을 청해 『春秋』를 侍講하게 하였다.⁵⁴⁾ 그리고 윗사람을 범하여 난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고, 仁政을 베풀고, 禮儀를 講究하되, 그 핵심 가치인 君臣·父子·夫婦·兄弟·朋友, 이른바 “三綱五常”을 강화하였다. 한편 이런 대의에 부합하는 역사상 인물을 찾아 새로운 시대의 전범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처럼 관우가 儒將으로 꼽힌 것은 자연스런 시대적 요구이기도 했다. 그는 평생 동안 劉備와 漢 황실에 대해 “忠義”를 다했으며, 조조에게 반 인질 상태로 잡혀있던 상황에서도 형수에 대한 “尙禮”를 지켰으며, 심지어 적인 曹操와 張遼에 대해서도 “守信”을 실천했던 인물이다.⁵⁵⁾ 또한 무엇보다 생전의 관우는 『춘추』를 좋아해서 그 구절들을 모두 외워서 입에 붙을 정도였다는 다소 武將으로서 특이한 점도 가지고 있었다.⁵⁶⁾ 결국 儒家의 다양한 顯彰⁵⁷⁾에 의해 관우는 忠·義·仁·信·勇을 구비한 이상적 儒將의 典範이 되었다.

“侯(關羽)는 평생 『春秋左傳』을 애호했다. 『春秋』는 王室을 높이고 夷狄을 물리치며, 亂賊을 誅討하는 것이니 누가 庸禮를 받받아 義로 삼겠는

-
- 54) 黃麗雷天怡, 「『春秋』與關羽~孔子 『春秋』大義與關羽刑象的神聖化系列研究之一」,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2卷第4期, 2010.8, 119쪽.
- 55) 『三國志演義』의 評改本을 만든 毛宗崗은 다음과 같이 관우를 평가했다. “許田之欲殺, 忠也; 華容之不殺, 義也. 順逆不分, 不可以爲忠; 恩怨不明, 不可以爲義. 如關公者, 忠可幹霄, 義亦貫日, 眞千古一人.” 吳松·易素貞, 「關羽崇拜現象形成的原因探析」, 『華北科技學院學報』 第4卷第4期, 2002.12, 103쪽.
- 56) 陳壽 著, 裴松之 注, 『三國志』 권54, 『吳書』, 「周瑜魯肅呂蒙傳」, 上海古籍出版社, 2011, 1176쪽. “江表傳亦云: “斯人長而好學, 讀左傳略皆上口.”
- 57) 이 외에도 儒家는 관우의 世家에 조금씩 儒家典範을 집어넣어 儒學世家였음을 창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康熙十七年戊午, 解州有常平土於昌者讀書塔廟. 塔廟, 侯故居也. 昌畫夢侯, 授以易碑二大字. 驚而寤, 見井者得巨磚, 碎之, 磚上有字; 昌急合讀, 乃紀侯之祖, 考兩世諱字, 生卒甲子大略.”; “公沖穆好道, 以‘易’、‘春秋’訓其子.” 沈茂陰, 『苗栗縣志』 권15, 『文藝志』, 「關聖帝君祀典序」, 台北: 台灣大通書局, 2009, 223~224쪽.

가. 侯가 昭烈(劉備)에게 간절했던 것은 참으로 춘추가 있어서였구나!”⁵⁸⁾

이 문장은 明 11대 世宗 嘉靖19年(1540), 都禦史 楊守禮가 寧夏總鎮 漢壽亭侯 舊廟를 重修하고 지은 것이다. 관우의 “왕실을 높이고 夷狄을 물리치며, 亂賊을 誅討하는” 것은 바로 尊王攘夷의 春秋大義였다. 諸葛亮이 칭찬한 “絕倫逸群”한 기질은 물론 관우의 아름다운 수염(美須髯)과 『춘추』를 좋아한 모습은 후대 儒將의 전형이 되기도 했었다.⁵⁹⁾ 결국 孔夫子가 『春秋』를 지었고, 關夫子⁶⁰⁾가 『春秋』를 읽은 것이다.⁶¹⁾ 공자와 관우를 문화적 유기체로 이은 매개는 바로 『春秋』였다.

2. 관우 神靈의 科試 개입과 사회 질서 유지

과거시험은 유생에게 신분 상승의 대표적 기회이자, 유가적 입신양명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였다. 그래서 평생을 유가 경전을 읽으며 과거시험에 매달렸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유생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특권이기도 했다. 반면 그것이 주는 사회적 중압감은 실로 엄청났다. 자연 유생들에게 그 어떤 종교적인 기원보다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

文衡帝君 관우의 등장은 전 시대 유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오늘날 대학입시 등 각종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58) 楊守禮, 『漢壽亭侯新廟』, 王珣 主編, 『寧夏新志』 卷2, 天一閣藏明代方志選刊本, 4쪽下. “侯平生雅好『春秋左傳』. 蓋『春秋』以尊王室, 攘夷狄, 誅亂討賊, 孰典庸禮爲義. 侯之所以拳拳於昭烈者, 良有以夫!”

59) 『晉書』의 「羊祜傳」·「郗鑒傳附郗恢傳」·「劉牢之傳」과 『周書』의 「楊忠傳」·「竇熾傳」·「庾信傳」에서 주인공들은 묘사할 때 모두 관우의 특징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趙山林, 「南北融合與關羽形象的演變」, 『文學遺產』 2000年第4期, 2000.7, 109쪽.

60) 관우를 夫子라는 칭호를 붙인 것은 明末에 시작되었다. 俞樾, 『茶香室續鈔』 卷19, 中華書局, 2006. “關夫子之稱起於明季…國朝王夫之『識小錄』云: 湯養仍集於主考但稱舉主某公, 可見濫稱老師, 萬曆中年後之末俗也. 崇禎末年乃有夫子之稱. 尤可笑者, 至以關侯與孔子同尊.”

61) 四川省 成都 關羽衣冠冢의 楹聯에는 “孔夫子, 關夫子, 萬世兩夫子; 修春秋, 讀春秋, 千古一春秋.”라는 문구가 있다. 於志斌, 「關羽: 儒稱聖, 釋稱佛, 道稱天尊-文化的變異複合」, 『蘇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6年第1期, 89쪽.

가지였다. 관우를 일종의 文教神이자 考試保護神으로 만든 것은 최고의 한 수였다. 유생들은 관우 숭배의 우상화 조성에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관우 신앙에 일종의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관우는 교화를 핵심으로 하는 유교 사회 구성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과거 제도는 봉건 사회를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였다. 지식인층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이 사회 질서 유지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일률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사회적 거대 담론이었다. 관우 신령이 과거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봉건 질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⁶²⁾ 관우 神靈의 科試 개입은 다양한 이야기를 양산했다.

- ① “秦澗泉 大士가 乾隆 壬申年에 장원 급제하였다. 散館 전에 正陽門 關帝廟에서 점괘를 뽑았는데, “조용히 항상 이 마음을 유지하라(靜來常把此心捫)”는 문구가 있었다. 아마도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잘못이 있으니 경계하라는 말인 듯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의미를 끝내 해석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과거시험을 보는데, 欽定황제가 낸 문제는 ‘松柏有心’으로 시를 짓는 것이었다. (그런데) 네 번째 단락에서 心字 本韻을 깜빡 누락한 채 제출했지만, 시험관들은 모두 알지 못했다. 황제가 이를 지적하며 웃으며 말했다. ‘狀元이 心이 없는 답을 썼는데, 主司 중엔 눈 가진 이가 없구나.’ 비로소 그는 관우 신령이 먼저 제시해준 것임을 깨달았다.”⁶³⁾
- ② “寧波의 狀元 史立齋가 大成을 지냈는데, 杭州에 鄉賦를 보러 가던 중 萬安橋 서쪽 關廟에서 占籤했다. 神이 준 籤訣에 이르길, ‘그대는 지금 庚甲에는 형통하지 못하고(君今庚甲未亨通), 강가에서 낚시꾼이나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아주 불쾌해 하면서도 “지금은 일등을 못할 인연일 뿐이다.”라고 했다. 과거가 順治 甲午(1654)에 있었는데, 방

62) 郭小霞, 「儒生與關羽崇拜」, 『株洲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8卷第6期, 2003.12, 13쪽.

63) 徐錫麟·錢泳, 『熙朝新語』, 上海古籍出版社, 1983. 郭小霞, 「儒生與關羽崇拜」, 『株洲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8卷第6期, 2003.12, 13쪽 재인용. “秦澗泉大士, 乾隆壬申狀元, 散館前求籤於正陽門關帝廟, 有“靜來常把此心捫”之句, 疑已有隱隱而神儼之云. 然時自訟, 終不解也. 及試, 欽定賦題“松柏有心”, 以題爲韻. 第四段忘卻心字本韻, 閱卷大臣俱未檢及, 上指出笑曰: “狀元有無心之賦, 主司無有眼之人.” 始悟神已先示之矣.”

이 불자 史立齋가 급제를, 또 다음 乙未年에는 장원급제를 하였다. 비로소 神言의 뜻을 풀기를, ‘甲·未에 형통한다(甲未亨通)’라고 했으니, 아! 기이하도다.⁶⁴⁾”

①이 수록된 『熙朝新語』는 清代 초기부터 嘉慶年間까지 국가의 朝章典故, 人物事跡 및 風土人情을 기록한 책이다. 여기서 관우는 과거시험을 보는 秦澗泉 大士에게 心자에 유의하라는 점괘를 내려주었다. 비록 그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지만 채점관의 눈을 가려 장원급제하게 해주었다. 그제야 關帝가 내려준 점괘의 의미를 알고 그 영험함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②는 『不下帶編』 卷5에 수록된 史立齋 이야기다. 역시 비슷한 경우로, 점괘 풀이를 잘못해서 벌어진 에피소드라 할 수 있다. 관우가 科試에 개입하는 것은 이런 식의 점괘 풀이 외에도 현몽 등 시험 전 문제 암시와 함께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유력한 수험생을 탈락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⁶⁵⁾

절국 유교는 孔子의 春秋大義에 기반을 두고 관우를 儒將으로 재창조하였고, 그의 신령을 文衡帝君으로 만들어 유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관우를 신화화한 것은 통치 사상의 확립을 위해 그의 “忠義”를 변화하여 만든 일종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식인층과 일반 백성들 모두가 관우를 롤 모델로 삼아, 그의 정신을 본받음으로써 사회 통제에 한 방편으로 삼았다.

- 64) 金埴, 『不下帶編』卷5, 中華書局, 1982. 於志斌, 「關羽: 儒稱聖, 釋稱佛, 道稱天尊-文化的變異複合」, 『蘇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6年第1期, 90쪽 재인용. “寧波史狀元立齋大成[史官宗伯] 鄉試杭州, 禱於萬安橋之關廟. 神示簽句云: “君今庚甲未亨通, 且向江頭作釣翁”云云. 心怏怏, 謂一第今無分耳. 是科爲順治甲午, 榜發, 中舉人. 明年乙未, 大魁天下, 始解神言謂亨通在「甲、未」也. 噫! 異矣!”
- 65) 이 외에도 關羽像 귀 안에 집을 지은 벌집을 청소해 준 대가로 현몽하여 『春秋』의 깊은 뜻을 講解해 주었다거나, 浙江사람 金華의 오만한 아들을 경계하여 빼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평생 秀才로만 살게 한 이야기 등이 전한다. 郭小霞, 「儒生與關羽崇拜」, 『株洲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第8卷第6期, 2003.12, 13~14쪽.

V. 결론

본고의 출발점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 關羽 神格化가 갖고 있는 문화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것이었다. 關羽神은 儒·佛·道로 대변되는 종교계에서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독특한 경로를 밟으며 뿌리를 내렸다. 각 종교는 관우의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재창조했으며, 이를 종교적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즉, 불교는 외래종교로서의 한계를 지역성을 띤 관우 神靈을 사찰을 수호하는 ‘伽藍神’으로 격상시키면서 토착화에 성공하였다. 특히 隋代 天台智顓와 唐代 大通神秀의 관우 顯彰은 荊州 玉泉寺라는 지역성과 이후 長安 진출이라는 정치성과 맞물려 그 파급력을 극대화시켰다. 반면 도교는 解州 鹽田의 국가적 중요성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도교 天師가 나서서 지켜낸다는 설정을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지역 출신 관우를 등장시켜 ‘關羽大破蚩尤’ 전설을 만들고, 관우 신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절실한 도교 신봉자였던 송 휘종의 추봉으로 이어졌고, 관우는 道敎的 神格을 확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교는 ‘儒將’ 관우 이미지를 공자의 春秋大義와 연결하여 ‘尊王攘夷’라는 시대정신으로 재창조했다. 이를 통해 忠義大節을 선양하여 국난 극복 등 국가 통치 질서 확립에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또한 관우를 ‘文衡帝君’으로 신격화하여 지식인층의 폭발적인 이끌어냄으로써 과거를 통한 사회 통제 기능까지 얻고자 했다.

이렇듯 관우 신격화는 종교적 발전 과정 속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儒·佛·道 삼교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 관우 신앙은 부족한 사상적 기반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관우 신령은 사회 전 계층에 유포되어 萬能神에 가까운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玉泉寺 關廟의 楹聯으로 알려진 “儒의 聖이요, 釋의 佛이요, 道의 天尊이니, 三敎가 모두 歸依했구나. 敬仰하니 關廟의 모습 항상 새로워 엄숙히 공경하지 않은 이 없다네.”⁶⁶⁾라는 문구는 儒·佛·道 三敎와 關羽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66) 鄭上有, 『關公信仰』, 學院出版社, 1994. “儒稱聖, 釋稱佛, 道稱天尊, 三敎盡歸依, 式詹廟貌常新, 無人不肅然起敬.”

■ 참고문헌

- 구은아, 「중국의 關公信仰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30, 2012.
- 남덕현, 「關羽 神格化的 요인 고찰」, 『中國研究』 46집, 2009.
- _____, 「關羽 문화현상의 의의」, 『중국학』 40집, 2011.
- _____, 「關羽 숭배의 근원」, 『中國研究』 52집, 2011.
- 배규범·민관동, 「정치적 관점에서 본 關羽 神格化的 歷史的 변모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42집, 2016.4.
- 이경선, 「관우신앙에 관한 고찰」, 『논문집』 8집, 1974.
- 이마이즈미 준노스케(今泉 恂之介), 이만옥 역, 『관우』, 예담, 2008.
- 전인초, 「關羽의 인물조형과 關帝信仰의 조선전래」, 『동방학지』 134집, 2006.
- 정연학, 「중국의 武聖, 관우: 명청대 이후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6집, 2003.
- 郭素媛, 「關羽崇拜與關羽形象的演變及詮釋」, 『齊魯師範學院學報』 第27卷第5期, 2012.10.
- 郭小霞, 「儒生與關羽崇拜」, 『株洲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8卷第6期, 2003.12.
- 董誥 等, 『欽定全唐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魯愚, 『關帝文獻彙編』,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5.
- 盧曉衡, 『關羽、關公和關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 劉海燕, 「關羽刑象與關羽崇拜的演變史論」,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 李元才 續修, 釋 亮山 補輯, 『玉泉寺志』(張智 主編, 『中國佛寺志叢刊』第14冊, 揚州: 廣陵書社, 2006).
- 李瀛, 『星湖僊說』 제9권, 「關王廟」,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4.
- 範攄, 『雲溪友議』(『古今圖書集成』 卷54, 北京: 中華書局, 1934).
- 普濟, 『五燈會元』, 北京: 中華書局, 1984.
- 徐道, 『歷代神仙通鑒』, 北京: 北京出版社, 2000.
- 徐松, 『宋會要輯稿』, 上海古籍出版社, 2009.
- 石俊 等, 『中國佛教思想資料選編』, 北京: 中華書局, 1983.
- 孫光憲, 『北夢瑣言』, 北京: 中華書局, 2002.
- 施耐庵, 『水滸傳』,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15.
- 於志斌, 「關羽: 儒稱聖, 釋稱佛, 道稱天尊」, 『蘇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6年第1期.

- 阮元,『十三經注疏』,北京:中華書局,1980.
- 王溥,『唐會要』,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6.
- 王齊洲,「論關羽崇拜」,『天津社會科學』1995年6期.
- 俞樾,『茶香室續鈔』,北京:中華書局,2006.
- 佚名,『大宋宣和遺事』,北京:中國古典文學出版社,1954.
- 張宇初,『漢天師世家』(『正統道藏』第34冊,天津:天津古籍出版社,1987).
- 錢穆,『兩漢經學今古文評議』,北京:商務印書館,2001.
- 鄭上有,『關公信仰』,北京:學院出版社,1994.
- 鄭振鐸,『脈望館抄校本古今雜劇』(『古本戲曲叢刊』第4輯,上海:商務印書館,1958).
- 朱國禎,『湧幢小品』,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
- 朱一玄等,『三國演義資料彙編』,天津:南開大學出版社,2003.
- 志磐撰,釋道法校注,『佛祖統紀校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
- 陳壽撰,裴松之注,『三國志』,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
- 陳曉英,「中國傳統哲學的三個觀念及其現代價值」,『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11卷第1期,2009.
- 焦磊,「關羽神聖化過程的歷史考察—以關帝廟為核心」,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2008.
- 胡琦,『關王事跡』,北京:文物出版社,2000.
- 胡聘之,『山右石刻叢編』卷21(『石刻史料新編』第18冊,台灣:新文豐出版公司,1982).
- 胡安國,『春秋傳序略』,成都:巴蜀書社,1984.
- 黃麗外,「春秋與關羽~孔子春秋大義與關羽形象的神聖化系列研究」,『遼東學院學報』第12卷4期,2010.

❖ ABSTRACT

Research on Guanyu's Anthropolatry and Aspects of Religious Leverage

Bae, Kuy – Beom

Min, Kwan – Dong

This paper presupposes that the reason for the development of Guanyu's anthropolatry as a cultural phenomenon is derived from, along with Guanyu's loyalism and valor, the people's physiological effects longing for the emergence of a hero, and is closely linked with religious activities to provide the justification of their belief system.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major religions that i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take the courses of Guanyu's anthropolatry to their religious advantage and how Guanyu-god is applied to roots in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n Buddhism, it succeeded in the settlement by upgrading it to jialan-shen that guarded the Buddhist temple, while in Taoism, it was used as a guardian of the san-jie-fu-mo-da-di that chased the almighty devil and deviated from the disaster and suffering. In Confucianism, it was connected to Guanyu's Confucian-commander image to that of chun-qiu-da-yi of kongzi. That is, by symbolizing Guanyu as God of Martial Power and War depending on the country, it was used as a means of governance to establish rules and order.

Key Words : Guan-yu, anthropolatry, religion,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Confucian-commander, God of Martial Power and War

■ 논문접수일 : 2017. 5. 10

■ 심사완료일 : 2017. 5. 31

■ 게재확정일 : 2017. 6. 2

